# 대학생활의 가시적 결과물

## 11월주제 '학 점'

막상 '학점'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원고지를 마주대하고 보니 무언가 어깨가 무겁고 뒷골이 뻐근한 느낌이 든다.

낙엽이 우수수. 어느듯 가을은 지나가고 싸늘한 초겨울이 다가오듯 항상 11월이 되면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의 취업과 더불어 '학점'이란 두 글자가 머리를 무겁게 한다.

4년동안의 총결산인 성적 순위대로 직장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교수님은 그 직장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취업과 학점이란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현실에 입각해서 볼때 학생들은 학점이란 두 글자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0년전 우리들의 학창시절에는 학점에는 별로 개의치도 않고 관심도 없었으며 마음껏 대학생활의 순수성을 즐겼다.

대학생의 낭만과 인생의 삶을 논했고 시를 읊고 음악을 들으며 교정의 아름다움 속에서 따사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보낸 그 시절이 이글을 쓰고 있는동안 새삼 그리워지며 가슴 한 구석에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날 우리들의 대학시절은 물질적으로는 거의 주어진 것이 없으나 정신적으로 진리탐구에 비교적 불만이 없었다.

남 윤 자
〈 가정대교수·의상학 〉

### 매년 이맘때면 학생들에게 성적에 맞는 직장을 추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것이 그시절보다 풍요롭고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생활이 왜 이렇게 살벌하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하루 하루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역사의 수레바퀴속에서 '시대의 흐름' '대학의 흐름'때문일까?

대학의 흐름이 어떻건 간에 학생들이 모름지기 지켜야할 것은 역시 대학생으로서의 인격의 도야 및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현 사회에서 우리들은 과감하게 벗어나서 자기자신을 위하듯이 타인을 사랑과 이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살펴간다면 가장 보람된 알찬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성실과 근면, 자기의 의사를 뚜렷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를 원할 것이며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이 사회는 더 필요로 해야 할 것이다.

학창시절에서 학점은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것보다 교수님과의 정겨운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확고한 신념속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노력의 알찬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후회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민방설립 논란을 보며

### 방송민주화의 걸림돌

### 현 방송체제가 더이상 장악되기 어렵다는 것을 안 정부가 선거홍보용 채널로 이용하리라는 소문이…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민간 방송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현 정권의 악랄함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다. 과거 5공때 방송을 힘으로 장악했던 것에 비해 6공은 오히려 더욱 지능적 수법으로 장악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당바위

남 궁 현
〈 경제·3 〉

더구나 얼마전 판결된 前 MBC 주주에 대한 주식 반환청구 소송 승리를 보면, 정부의 민방주도 기업에 있어서 태영의 선정은 민자당을 희대의 사기꾼이자 장물아비로 볼 수 밖에 없게 만든다. 5공이란 세계 최대의 범죄 집단(?)의 두목인 전모씨가 강탈한 TBC, DBS등의 주식을 민자당은 교묘히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주인은 아랑곳 않고 '태영'에 팔아 먹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 올 초 방송 관계법에 대한 민자당의 날치기 통과등 민간 방송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급박하게 논의되었을 때부터 장안에는 여러 소문이 떠돌았다. 유례에 없었던 KBS의 장기적 파업등 양 방송의 노조강화와 파업등으로 인해 현 방송체제가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자 민자당 정권은 민간 방송을 92년 선거에 대비한 선거 홍보용 채널로 삼는다는 소문이다. 또한 민방에서 나오는 수 많은 오락물로서 공영 방송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즉 공영 방송의 시청율을 현격히 줄여 나감으로써 일반 대중을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던 차에 민간방송 내정설까지 나돌았던 '태영'의 선정은 더더욱 국민을 의심과 의혹의 도가니에 몰아 넣게 된다. 민방 참여의사를 밝혔던 기업중 가장 부실기업으로 지목되었던 '태영', 방송에 관한한 문외한이라는 '태영 사장!' 왜 '태영'이 민방 주도 기업으로 선정되었을까? 정부는 정말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민방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정말 올바른 의지를 가진 정부라면 강탈한 주식은 모두 원소유주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방을 설립하기 이전에 방송의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KBS 서기원 사장의 퇴진, 방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구속된 구속자의 전원 석방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서는 민방의 설립은 방송 민주화에 차가운 서리를 몰고 올것이 자명하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전시 태세를 갖춰야 한다. 선포한 주체는 뒤로 쏙 빠져 당권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민간 방송도 마찬가지다.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올바른 준비를 가져야 한다. 사전에 내정된, 국민을 철저히 우매시하는 그런 사기적인 준비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정부의 귀를 넓혀야 하며 또한 들은 것은 올바르게 정책에 수렴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방송의 임무가 될수도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수 없는 민간 방송이라면 그것은 정부의 특정한 요구로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한 독재 국가의 정부 방송이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방송은 절대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민자당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의 민주화, 방송의 민주화가 이 땅에 민주화의 뿌리를 내릴 척도라 믿으며, 사기꾼(?)집단 민자당을 철저히 규탄한다.

## 중복학과 문제 심화시킨 야간학과 신설논란

### —지난주 게제된 정현채교수의 글을 보고

크게는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분산이라는 사회적 이익 차원에서 작게는(?) 학원규모의 확대와 학과의 다양화라는 취지를 안고설립된 제2캠퍼스는 대부분 중복학과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다. 본교 수원캠퍼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발전의 장애로 그리고 서울, 수원 양캠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하나의 경희라는 일체감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복학과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리대의 화학과 물리학과 야간 학부 신설 시도는 애초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그 결정이 수원캠퍼스 해당학과 교수와 학생의 의견수렴이 없었기에 문제는 더욱 컸었다할 것이다. 다행이 자연대 학우들의 투쟁으로 그 결정이 철회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지난주 명예기자란에 실린 문리대 정현채 교수님의 글은 새로운 낭패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중복학과 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학원문제를 풀어갈 때 분단된 경희가 아닌 하나의 경희라는 전제하에서 풀어가야 한다.

경희의 발전은 서울·수원 따로따로의 발전에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희로서의 발전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서울과 수원의 발전을 따로 생각한 정교수님의 글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특히 하나의 경희를 요구하는 자연대 학우들을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학교발전을 방해하는' 학생들로 묘사한 것은 자연대 학우나아가 경희학우 전체에 대한 중대한 모욕인 것이다.

누구에게는 중복학과의 야간신설이 '굴러온 떡'쯤으로 보일지도 모르나 수원캠퍼스 학우들에게는 커다란 절망하나를 안겨주는 것이며 경희발전에 하나의 질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희의 발전은 굳이 중복학과의 신설이 아니라도 '현대 사회에 필요한 여러 선진적인 과의 신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닌 교수의 법정 정원수와 강의실 확보등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일을 계기로 학교당국은 중복학과 해결에 진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며 경희학원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은 하나의 경희라는 일체감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 대 원
〈 사회·1 〉

## 명예기자석

명예기자석은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 ~ 4 매
◇보낼곳 : 서울·수원 〈본사편집실〉

## 진정한 민주주의 훈련의 장 선거열풍에 휩싸인 캠퍼스

학원의 많은 것들이 정리와 결실의 시기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91년도의 새로운 출발을 서둘러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반성과 혁신의 필요에 의해 11월의 학원은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된다.

이젠 더이상 학우대중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일하겠노라고 약속하며 나선 후보와 그 주변의 지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캠퍼스 곳곳에 붙은 갖가지 홍보물을 보며 학우들은 조금은 어리둥절함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참으로 선거라는 것은 진정 부르조아식의 기만적인 투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투쟁속에서 최선방에 설 투사를 뽑아내는 자리이다.

그리고 다음해의 학생들의 대표를 조직하는 사업이므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탄압에 불행한 학원의 현실이 고통을 뚫고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선거의 전부가 되어버린듯한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어지러운 홍보물과 넘치는 선전물, 화려한 문선대공연 등을 볼때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것들은 선거의 진면목이 아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이끄는 '보여주기'식의 선거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근거로써 접근해 가야 한다.

또한 선거가 단순히 사람만을 뽑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것은 학우대중의 민주적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 선 아
〈 철학·1 〉

## 학생회관으로 옮긴 각종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돼야

지난 10월12일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이 개관식을 여러차례 미루는 등의 우여곡절끝에 개관식을 가졌다.

이 학생회관에는 1층의 학생식당과 우체국, 휴게실 등을 비롯하여 7층까지 여러가지 학생자치기구및 편의시설 동아리방들이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학생회관에 의해 조성되는 유동인구는 건물의 규모나 상주인구로 봐서도 어느 단대건물 못지않게 크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회관에 문제점중 제일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위치문제이다. 학생회관이 개관되기 전의 모든 자치기구나 학생편의 시설은 공대, 외대, 체육대학의 건물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 모든 시설이 학생회관으로 옮겨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나 학생회관의 건립목적은 위의 모든기구를 한곳에 모아 둠으로써 이용에 편리함을 구하자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실정은 어떠한가. 이제껏 학교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역시 학교의 중심지역할을 하고있는 공대, 외대, 체대 학생들이 이런 학생편의시설등을 이용하는데 전보다 용이함을 느끼고 있을까, 일예로 공대 학생이 몸이 아파 보건소를 찾으려한다면 그야말로 산을 넘어 5분이상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에는 예전부터 운행되어 오던 셔틀버스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회관앞에서는 절대로 세워줄 수 없다는 표지판을 붙이고 외국어대에서 자연대만을 왕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중간에 세워줄수는 정말 없는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힘든일인가(?) 배차시간도 10분정도로 줄인다면 학생회관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대나 사대 학생들의 행동반경도 더 넓어지리라 생각한다. 오랜공사 끝에 만들어진 학생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생회관이 이러한 사소한 이유로해서 이용율이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 건 훈
〈 서반아어·2 〉

## 알림터

### ◇고 황 골◇

#### 경제과·회계과 졸업생환송회

경제학과 학생회와 회계학과 학생회는 오는 16일 오후6시에 각각 '경제인의밤'과 '회계인의밤'을 가진다.

졸업생 환송회와 겸하는 이 행사는 경제과는 '한강잠실 관광유람실'에서, 회계학과는 '롯데월드 네버럴드룸'에서 선후배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진다고.

#### 고황민국 국회

지방자치제와 내각제를 주제로 한 '제4회 고황 민국국회'가 정외과학생회 주최로 오늘 오후 4시30분 크라운관에서 열린다.

이번 모의국회는 내무위원회와 경제특별위원회의 형식을 빌어 3당통합, 지자제, 내각제를 주내용으로 한 정치문제와 주택난, 물가고, UR협상에 따른 농촌경제문제를 다룬다.

한편 정승택(정외·3)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은 "현 정치권력의 한계점을 드러내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모의국회를 통해 학우들의 문제인식의 수렴과정으로 삼는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 민사 모의재판

법학과 학생회는 '제23회 민사모의재판'을 '대리모'라는 주제로 오는 20일, 오후 3시, 법대 101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모의재판은 재판부에 강봉수 서울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직접 판사로 참석하며 봉건제의 씨받이가 자본제에서 계약이라는 합법적 형태로 행해진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양측 소송대리인이 변론을 펼쳐 나가는 동안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유아인도 청구권', '계약금 반환 여부' 등의 쟁점이 거론된다.

### ◇서 천 골◇

#### 매킨토시 회원모집

아마츄어 무선동아리 HAM이 오늘 19일까지 매킨토시(Macintosh)컴퓨터에 관심있는 사람를 모집한다. 매킨토시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도 경희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 회계인의 밤

졸업생환송회를 겸한 회계인의 밤이 오는 18일 오후1시 '쉐라톤 워커힐'에서 열린다.

회계학과 학생및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회비는 1만원.

#### 산업디자인전

'제3회 산업디자인전'이 산업디자인학과 주최로 14일부터 3일간 오전11시에서 오후6시까지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올해부터 매년1회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표현기법, 정밀묘사, 입체구조등의 기법이 선보이게 된다.

#### 물리학과 원고모집

물리학과가 학회지 '매니아' 발간을 위해 원고를 모집한다.

2백여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되는 이번 학회지는 1부에서 전반적 학과이야기와 물리학에 대한 논문으로 구성되는 2부, 그리고 3부는 양케이트로 채워진다.

각부분에 해당되는 원고는 이달 하순까지 과편집부를 접수하면 된다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긍지 ④ 수영들놀음
무형문화재 제 43호로 부산 수영동에서 보존되고 있는 탈춤.
화려한 길군악을 시작으로 양반마당, 영노마당, 영감할미마당, 그리고 사자춤마당으로 구성된 풍자와 해학이듬뿍 담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백구야
훨훨 나지를 마라

굿거리 장단에 어깨춤을 추어보자
수양반은 의젓하게, 차양반은 노련하게,
종가도령 까불대며 탈판을 북돋우네.
수양반 사선저어 풍물치고 춤을 추고
말뚝이 마편잡고 거짓양반 희롱할 제
맺힌 일 쌓인 감정 훌훌 털어지네.
자진모리 힘찬가락 우리네 마음일세.
다함께 어깨걸고 공동합창 노래하세,
'소인, 말뚝이 문안이요 —'

탈춤이란 민중 공동체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엮어온 대다수 민중의 뜻과 땀의 결집이
독창적 극형식에 의해서 꾸며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어제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지발전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놀이문화를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대한항공